

한일 소화(笑話)의 인명(人名) 열거 방법*

금 영 진**

국문초록

본 논문에서는 한일 소화(笑話)에 보이는 인명(人名) 열거 방법에 대하여 고찰하였다. 그리고 그 결과, 사람 이름의 열거 순서와 조합 방법에 있어서 한일 양국에서는 서로 다른 방법이 발달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첫 번째로, 한국 소화에서는 열거되는 인물 간의 서열이나 우열 관계에 대한 고려가 보이지만 일본 소화에서는 그러한 의도가 거의 보이지 않았다. 그리고 이는 입신출세 지향적인 조선의 사대부 문화와 그렇지 않은 일본 조정의 세습 귀족 문화의 차이에서 기인한다.

두 번째로, 한국 소화에서는 성씨보다는 이름과 관련한 언어유희가 발달하였지만, 일본 소화에서는 반대로 성씨와 관련한 언어유희가 발달하였다. 그리고 이는 한국인의 성씨가 외자로 음절이 하나이고 수도 많지 않아 언어유희에 적합하지 않지만, 일본인의 성씨는 두 자 이상이고 일본어 발음도 많아 언어유희에 적합하다는 차이점 때문이다.

세 번째로, 한국 소화에서는 한시(漢詩)처럼 이름 간에 서로 대구를 이루는 방법이 보이지만, 일본 소화에서는 렌가(連歌) 또는 연구(聯句)처럼 이름과 이름이 일직선상으로 길게 연결되는 특징을 보이는데 이는 양국 고전 시가 문학의 주된 발전 양상의 차이에서 기인한다.

[주제어] 한일 소화(韓日笑話), 인명 즈쿠시(人名尽くし), 열거 방법, 동국골계전(東國滑稽傳), 에도 하나시본(江戸嚙本)

목 차

- | | |
|---------------------|-------------------|
| I. 서 론 | III. 일본의 인명 열거 방법 |
| II. 조선 소화의 인명 열거 방법 | IV. 결 론 |

* “이 연구는 (2022학년도) 한국외국어대학교 교내학술연구비의 지원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임”

** 한국외국어대학교 일본언어문화학부 강의중심교수 / keumuek7@hufs.ac.kr

I. 서론

일본 고전 속의 지즈쿠시(字尽くし)¹⁾ 및 모노즈쿠시(物尽くし)²⁾ 언어유희에 관한 연구를 하면서, 필자는 사람 이름을 따로 모아 늘어놓는 인명 즈쿠시가 한일 양국 소화에도 보인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즉, 에도 시대에 간행된 에도 하나시본(江戸噺本)과 조선 한문 소화집을 비교 고찰하는 과정에서 인명 즈쿠시를 이용한 언어유희를 다수 확인한 것이다. 그리고 사람 이름을 늘어놓는 순서에는 나름의 기준과 규칙이 작용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예를 들어, 교토(京都)의 안라쿠안 사쿠덴(安楽庵策伝, 1554~1642) 스님이 쓴 일본 최초의 소화집 『세스이쇼(醒睡笑)』(1623년) 권2에는 「이름 지어 준 대부(名づけ親方)」라는 주제의 소화가 20개 실려 있다. 주로 사람의 이름에 얽힌 웃긴 이야기를 모아 놓았는데, 그중에는 인명 즈쿠시를 이용한 이야기가 여럿 보이며 다음에 소개하는 제6화도 그런 하나이다.

늘 사람들로부터 우리름을 받는 사무라이가 있었는데, 이로하(이로하니호헤도치……은(いろはにほへとち……ん) 한글의 가나다라마바사아에 해당하는, 가나 문자 48개가 한 번씩 들어가는 노래 : 필자 주) 맡고는 글을 읽지도 못한다. 어느 날, 한 백성이 찾아와 이름을 바꾸고 싶다고 하자, 이로하 책을 옆에다 놓고는, “①이(い)히요는 어떤가?” “별론데요.” “그럼 ②로(ろ)히요는?” “그것도 별로요.” “③하(は)히요는?” “④니(に)히요는?” “⑤호(ほ)히요는?”하고 작명해 주지만 “아뇨. 그것보다는 약간 길면서 ‘은(ん)’ 발음도 들어간 이름이었으면 합니다.”라고 대답하자, “그럼 ⑥헤도치(へとち)자에몬(左衛門(もん))이라고 하지”라고 말하는 것이었다.³⁾

- 1) 금영진, 「에도 하나시본(江戸噺本) 속의 지즈쿠시(字尽くし) - 언어유희 방식의 한일 비교 -, 『외국학연구』 36, 중앙대학교 외국학연구소, 2016a, 147~180쪽, ‘지즈쿠시(字尽くし)’란 동음의 같은 글자나 유사한 발음을 반복하는 언어유희로서, 각 문 화권에서 저마다 발전되어 왔다. 가령, 서양의 ‘로우 로우 유어 보트(Row, Row, Row Your Boat)’라는 곡에 가사를 붙인, “리리리자로 끝나는 말은?”은 그 좋은 예이다. “괴나리, 보파리, 댄사리, 소쿠리, 유리 향아리!” 혹은, “피꼬리, 목소리, 개나리, 울타리, 오리 한 마리!”에서 보이는 ‘리’자 운율의 반복도 일종의 지즈쿠시라 할 수 있다.
- 2) 금영진, 「아호다라코(阿佛陀羅經)를 통해 본 나이즈쿠시(無い尽くし)의 방법과 계보 - 하야모노가타리(早物語) 기법과 언어유희, 세태 풍자를 중심으로 -, 『일본어문학』 94, 일본어문학회, 2021, 348~349쪽. “모노즈쿠시는 특정 키워드의 관련 사물 등을 짝 열거하는 기법이다. 지즈쿠시와 모노즈쿠시는 종종 혼동되는 경향이 있는데, 요시카와 미에코(吉川三枝子)씨의 선행 연구에 의하면 특정 주제의 키워드 관련 사물들을 열거하는 형태를 마쿠라노소시형(枕草子型物尽くし), 특정 어구가 열거, 반복되는 경우를 엔쿄쿠형(宴曲型物尽くし), 양쪽 요소가 모두 보이는 경우를 근세형 모노즈쿠시(近世型物尽くし)로 분류하고 있다(吉川三枝子, 「物尽くしの体系的研究」, 『日本歌謡研究』 第13巻, 日本歌謡学会, 1974, 6쪽에서 재인용). 필자 역시 이 주장에 어느 정도 동의하나, 에도 하나시본의 모노즈쿠시에서도 어느 한쪽 요소만 이용한 경우가 있고, 마쿠라노 소시에서도 양쪽 요소를 다 내포하는 경우가 있는 관계로 이 용어를 그대로 받아들일지는 유보하기로 한다. 가령, 무서운 것은? 이라는 주제에 대해 뱀, 귀신, 악어, 불면증, 강도, 모기라고 열거하면 이는 마쿠라노소시형 모노즈쿠시가 된다. 반면, 나이즈쿠시처럼 친구가 없다, 돈이 없다, 시간이 없다와 같이 ‘없다’라는 동음 어구를 반복하면 엔쿄쿠형 모노즈쿠시가 되는 것이다. 그리고 양쪽 요소 모두를 담고 있는 복합형의 경우, 예를 들어 해인사, 불국사, 조계사, 화엄사를 열거하면 절이라는 주제와 ‘사(寺)’라는 동음이 반복되기에 근세형 모노즈쿠시가 되는 것이다. 필자는 마쿠라노소시형을 모노즈쿠시, 엔쿄쿠형을 지즈쿠시, 근세형을 복합형이라 부르기로 한다.” 참고로 지명을 다룬 모노즈쿠시에 관한 연구로는 금영진, 「지명 즈쿠시(地名尽くし)의 배열방식 한일비교」, 『비교일본학』 37, 한양대학교 일본학 국제 비교연구소, 2016b, 129~148쪽이 있고, 젠말 놀이와 관련된 지즈쿠시와 모노즈쿠시가 복합된 언어유희에 관한 연구로는 금영진, 「가부키(歌舞伎) 『우이로우리(外郎売)』의 하야모노가타리(早物語) 언어유희 방법과 구연(口演) 속도」, 『일본어문학』 98, 일본어문학회, 2022, 279~303쪽이 있다.

이로하 밖에 모르는 무식한 사무라이가 개명을 원하는 백성에게 이로하 48문자 순서대로 작명한 엉터리 이름을 열거하는 인명 즈쿠시이다. 이 이야기에 나오는 총 6개의 이름이 이로하 순(이로하니호헤도치……)으로 열거되었음을 알 수 있다.

〈표 1〉

①이히요(いひよう)	②로히요(ろひよう)	③하히요(はひやう)
④니히요(にひやう)	⑤호히요(ほひやう)	⑥헤도치자에몬(へとち左衛門)

이야기의 결말에서 한꺼번에 3개의 문자(헤도치)를 이로하 순서대로 연달아 붙임과 동시에, 이로하 48문자의 가장 마지막 글자인 ‘은(ん)’ 발음이 들어간 ‘문(門(もん))’으로 끝나는 엉터리 이름 작명이 웃음을 불러 일으키는데, 이처럼 이름을 늘어놓는 순서의 기준이 있는 경우를 ‘열거(列挙)’라고 한다.

하지만 그런 기준이 없이 이름을 늘어놓은 경우는 ‘나열(羅列)’이 된다. 예를 들어 라쿠고(落語) 『히다리진고로사쿠(左甚五郎作)』에서는 혼인도 하지 않은 처녀가 임신을 하자 유모가 의심 가는 동네 남자들의 모든 이름(①젠시치(善七), ②도쿠베(徳兵衛), ③사헤이(佐兵衛), ④간자부로(勘三郎), ⑤신베에(新兵衛))을 쭉 늘어놓는 장면이 보이는데,⁴⁾ 이때 이 이름들을 아무런 기준 없이 그냥 늘어놓았다고 한다면 이는 나열이 되는 것이다.

국내 연구자들의 선행연구에서는 열거와 나열의 개념 정의를 명확히 하지 않고 혼동하여 쓰는 경우가 많지만, 나름 그 속의 규칙성과 기준을 밝혀내어 열거라는 용어를 쓰는 연구도 보인다. 즉, 백석의 시에 보이는 사람 또는 사람 이름 열거에 관한 연구 논문에서는 열거라는 용어를 쓰고 있는데⁵⁾ 필자 또한 이에 따르기로 한다.

사물 명칭이나 동물 이름, 지명, 사람 이름을 열거 또는 나열하는 모노즈쿠시의 전통은 동아시아 문학에서 그 역사가 깊고 다양한 형태로 발전해 왔지만⁶⁾ 이러한 언어유희가 한일 양국 고전 속에서 어떠한 형태로 발전해 왔는지에 대한 상호 비교 고찰은 없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한일 양국 소화에 보이는 인명 열거 방법에서의 특징에 대해 고찰해 나가고자 한다.

3) 武藤禎夫, 『喃本大系』, 東京堂出版, 1987b, 37~38쪽, “型の如く人のもてはやす侍ありしが、いろはより他には、かな書きの文をさへ読むことなし。ある時、地下人参りて、我か名を変へたき由望ければ、例のいろはを傍らに置きて、「いひようへとつけうかや」、「いや」、「それならばろひようへとやつけん」、「いや」、「はひやうへ」、「にひやうへ」、「ほひやうへ」とつくれども、「いやたゝ、いますこし長うて、撥ねた名をつきたふ御座ある」と申たれば、「さらば、へとち左衛門とつけうず」といへり。”

4) 武藤禎夫, 『定本 落語三百題』, 岩波書店, 2007, 363~364쪽.

5) 김응교, 「백석[모닥불]의 열거법 연구」, 『현대문학의 연구』 24, 한국문학 연구학회, 2004, 277~304쪽 및 오성호 「백석 시의 열거와 그 의미에 관한 연구」, 『남도문화연구』 25, 순천대학교 남도 문화 연구소, 2013, 349~376쪽.

6) 한편, 박영희에 의하면, 중국의 『예기(禮記)』나 부(賦)에도 이러한 형태의 언어유희가 보인다고 한다. 박영희, 「『禮記』〈內則〉의 나열식 글쓰기를 통해 본 기록과 규범 사이」, 『중국어문학지』 57, 중국어문학회, 2016, 73~95쪽, “**일상적인 소소한 행동과 사물들을 나열한 이 같은 글쓰기 방식은 漢代에 유행했던 〈七發〉·〈子虛賦〉·〈上林賦〉 등 賦에서 세밀하게 묘사하듯 사물을 나열한 修辭法과 동일한 맥락에서 나온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주로 한일 양국의 최초의 소화집에 보이는 인명 열거를 중심으로 살펴 보았다. 주로, 『동국골계전(東國滑稽傳)』(1477년)과 『세사이쇼(醒睡笑)』(1623년)에 실린 인명 즈쿠시가 보이는 소화가 그 대상이다. 한일 양국 최초의 소화집에 보이는 인명 열거 방법에 대한 고찰은 그 초기 형태를 파악할 수 있음과 동시에 후대의 판소리나 라쿠고(落語)등 한일 양국 구연 예능에서의 인명 즈쿠시의 발달 양상을 이해하는 기초 자료가 되기 때문이다.

II. 조선 소화의 인명 열거 방법

『동국골계전(東國滑稽傳)』 제127화에는 어느 선생이 숫자를 배우는 세 명의 서생에게 ‘인명성수(人名成數)’라는 글제를 주어 서로의 우열을 겨루게 하는 다음과 같은 장면이 보인다.

수학을 배우는 세 학생에게 재주의 우열을 비교하여 직책을 주기로 하고, 학관(學官)이 사람 이름으로 숫자를 이루어 보라는 문제를 냈다. 한 학생이 말하기를, A“**①하단갑(河檀甲), ②조을(祖乙), ③외병(外丙), ④무정(武丁), ⑤조기(祖己), ⑥반경(盤庚), ⑦조신(祖辛), ⑧중임(仲任)**”이라고 했는데, 십간(十干)에서 계(癸)가 빠졌다. 다음 학생이 말하기를, B“**①오도자(吳道子), ②공손추(公孫丑), ③호인(胡寅), ④소정묘(少正卯), ⑤애공불진(哀公不辰), ⑥가오(賈午), ⑦김유신(金庾申), ⑧향술(向戌), ⑨호해(胡亥)**”라고 했는데, 십이지(十二支)에서 사(巳)와 미(未)가 빠졌다. 다음 학생이 말하기를, C“**①이일동(李一同), ②권이기(權二己), ③성삼문(成三問), ④김사우(金四宇), ⑤이오행(李五行), ⑥정육손(鄭六孫), ⑦권칠림(權七林), ⑧이팔동(李八同), ⑨방구행(房九行), ⑩민효열(閔孝悅)**”이라고 했다. 학관이 말하기를, 어찌해서 열(悅)에서 취했는가? 라고 했다. 그 학생이 말하기를, “십(十)이라는 글자의 해석이 우리말로는 열(十)이기 때문에 그것을 취한 것입니다” 하고 말했다. 학관이 크게 웃고는 함께 같은 반열에 두었다.⁷⁾

숫자와 관련된 사람 이름이 열거된 이 이야기에서는 모두 27개의 이름이 3개의 그룹으로 나뉘어 열거되었다. 이야기의 마지막 결말 부분에서, 숫자 ‘십(十)’이 들어간 이름이 떠오르지 않아 억지로 ‘민효열(閔孝悅)’이라는 이름을 넣고 ‘열’을 ‘십’이라 우긴 것이 웃음을 불러일으킨다. 이 이야기에서 첫 번째 학생이 열거한 A의 8개 이름은 중국 은(殷)나라 왕 이름 중에서 ‘십간(十干)’과 관련된 것들이다.

7) 박경신, 『對校·譯註 太平閑話滑稽傳』 1, 국학자료원, 1998a, 582~587쪽, “數學三生、較才優劣當授職、學官以人名成數為題。一生曰、河檀甲、祖乙、外丙、武丁、祖己、盤庚、祖辛、仲任、於十干闕癸。一生曰、「吳道子、公孫丑、胡寅、少正卯、哀公不辰、賈午、金庾申、向戌、胡亥、於十二支闕其巳未」 一生曰、「李一同、權二己、成三問、金四宇、李五行、鄭六孫、權七林、李八同、房九行、閔孝悅」學官曰、「何取於悅曰十字の積方音為悅故取爾」學官大笑并置一列” 또한, 숫자를 이용한 이러한 언어유희는 주령의 전형적인 방법이기도 하며, 이에 대한 선행연구로는 금영진, 「동아시아의 세 사람 주령형 소화」, 『동양학』 57, 단국대학교 동양학연구원, 2014, 35~36쪽을 들 수 있다.

<표 2>

①甲	②乙	③丙	④丁	戊	⑤己	⑥庚	⑦辛	⑧壬	癸
河檀甲	祖乙	外丙	武丁	없음	祖己	盤庚	祖辛	仲任	없음

십간(갑(甲), 을(乙), 병(丙), 정(丁), 무(戊), 기(己), 경(庚), 신(辛), 임(壬), 계(癸))과 관련된 이름을 순서대로 열거했음을 알 수 있다. 소화 원문에서는 ‘계(癸)’가 빠졌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무(戊)’도 빠졌다. 필자가 조사한 바로는 은나라의 제9대 왕 이름이 ‘태무(太戊)’이다. 만약 소화의 전승 과정에서 글자가 누락 되었다고 한다면 그 글자는 ‘태무(太戊)’일 것이다. 한편, 두 번째 학생이 열거한 B의 9개 이름은 역사 위인 이름 중 십이지(十二支)와 관련된 것들이다.

<표 3>

①子	②丑	③寅	④卯	⑤辰	巳
吳道子	公孫丑	胡寅	少正卯	袁公不辰	없음
⑥午	未	⑦申	酉	⑧戌	⑨亥
賈午	없음	金庚申	없음	向戌	胡亥

이름에 십이지(자(子), 축(丑), 인(寅), 묘(卯), 진(辰), 사(巳), 오(午), 미(未), 신(申), 유(酉), 술(戌), 해(亥)) 글자가 들어가는 중국의 역사 위인을 순서대로 열거했음을 알 수 있다. 소화 원문에서는 십이지 중 ‘사(巳)’와 ‘미(未)’ 관련 이름이 빠졌다고 했지만, 실은 ‘유(酉)’ 관련 이름도 빠졌다. 열거된 이름 대부분은 중국의 역사 위인으로, 유일한 우리나라 사람은 김유신 한 명이다. 다만, ⑦ ‘김유신(金庾信)’의 이름에 쓰이는 원래 한자와는 달리, 이 이야기에서는 십이지에 맞게 일부러 ‘김유신(金庾申)’으로 한자를 바꾸었다. 그리고 세 번째 학생이 열거한 C의 10개 이름은 숫자가 들어간 조선 전기의 조정 관료 이름들이다.

<표 4>

①李一同	②權二己	③成三問	④金四字	⑤李五行
⑥鄭六孫	⑦權七林	⑧李八同	⑨房九行	⑩閔孝悅

숫자 일(一)에서 십(十)까지 이름에 숫자가 들어간 조선 전기의 조정 관료들을 순서대로 열거하였다. 박경신의 연구에 의하면, 이 10명 중 5명(①이일동, ⑤이호행, ⑥정육손, ⑧이팔동, ⑨방구행)은 세조 1년(1455)에 원종공신에 녹훈된 사람들이다.⁸⁾ 이 소화집의 저자인 서거정(1420~1488) 역시 당시 원종공신 2등에 녹

8) 박경신 앞의 책, 1998a, 582~587쪽에 의하면, ④김사우(金四字)처럼 실제 인물인지 확인되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 박경신은,

흔된 것을 감안하면, 작자 주변의 원종공신 동료 이름을 다루었음을 알 수 있다. 참고로, 서거정이 숫자가 들어간 이름에 관심이 있었음은, 자신의 이름과 발음이 비슷한 사가정(四佳亭)을 호로 삼은 것만 봐도 알 수 있다. 서울 지하철 7호선 사가정역도 여기에서 유래한다. 따라서 이 이야기가 저자 자신 또는 주변 인물 사이에서 오갔던 우스갯소리의 결과물임을 유추할 수 있다.

등장하는 인물의 국적에 있어서 중국의 역사 위인 이름이 조선의 위인 이름보다 더 많이 등장하며, 열거 순서에서도 중국 역사 위인이 먼저 열거되고 조선의 위인 이름은 나중에 열거되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다.⁹⁾ 한편, 『동국골계전』 제136화에는 다음과 같은 인명 열거가 보인다.

무신인 우공(禹貢)이라는 사람이 절도사(경상좌도 수군절도사: 필자 주)가 되어 지방으로 나가게 되었다. 손님 가운데 어떤 사람이 장난삼아 말하기를, “그대는 마땅히 ①김등(金滕)을 평사(評事 - 절도사를 도와 군수 업무 및 인사고과를 담당하는 문관: 필자 주)로 삼고, ②이홍범(李洪範)을 우후(虞侯 - 절도사의 부관: 필자 주)로 삼고, ③함유일(咸有一)을 군관(軍官 - 장교: 필자 주)으로 삼아야 하리라”라고 했다. 우(禹)가 말하기를, “만약 세 현인을 얻어 보좌로 삼는다면, 마땅히 ④범백주(汎柏舟), ⑤표유매(標有梅), ⑥혜소성(嘒小星) 세 기생으로 하여금 잠자리 시중을 들게 하리라”라고 했다. 손님이 말하기를, “그대는 시경(詩經)과 서경(書經)에 통달한 옛 명장이라 일컬을 수 있겠도다”라고 했다.¹⁰⁾

이 소화에는 모두 6명의 이름이 나오지만, 사실은 모두 실제 인명이 아니다. 박경신의 연구에 의하면, 처음에 열거된 3명(①김등 ②이홍범 ③함유일)의 이름은, 각각 『서경(書經)』의 ①금등편(金滕篇 - 주공 단의 큰 덕과 무왕에 대한 그의 간절한 충성을 증명한 글)과 ②홍범편(洪範篇 - 홍범 9조의 덕목을 지켜야 함), 그리고 ③함유일덕편(咸有一德篇 - 모두 한결같은 덕을 지녀야 함)을 의식한 작명이다.

또, 두 번째로 열거된 3명(④범백주, ⑤표유매, ⑥혜소성)의 이름 역시 기생 이름이 아니라 각각 『시경(詩經)』에 나오는 시 구절을 이용한 작명이다.

④범백주는 패풍편(邶風篇)에 나오는 첫 번째 시의 첫 구인 범피백주(汎彼柏舟 - 두둥실 저 측백나무 배)를 의식한 것이다. ⑤표유매(標有梅)와 ⑥혜소성(嘒小星)은 패풍편 바로 위의 소남(召南)편 아홉 번째와 열 번째 시의 첫 구절이다. ⑤표유매(標有梅 - 매실이 떨어지네)는 나무에서 매실이 다 떨어질 때까지 남은 매실의 숫자를 세며 자기를 데려갈 남자가 어서 와 주길 애타게 기다리는 혼기 놓친 여인의 심정을 읊은 노래의

김사우(金四守)라는 이름이 김사우(金師守)를 일부러 숫자 ‘사(四)’에 맞게 바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 9) 이러한 경향은 중국의 효자전(孝子伝)과 충신, 열녀 이야기를 의식한 언해본 『삼강행실도(三綱行實圖)』(1481년, 중국 위인 91명, 조선 위인 14명(효자 4명, 충신 6명, 열녀 6명))이나 『속삼강행실도(續三綱行實圖)』(1514년, 중국 위인 133명, 조선 위인 17명(효자 4명, 충신 7명, 열녀 6명))에서도 금방 확인된다. 즉, 중국 위인이 먼저 열거되며 그 숫자 또한 조선의 효자 열녀 숫자보다 압도적으로 많은 것이다. 반면, 중국의 『이십사효(二十四孝)』를 의식하여 일본의 효자 24명을 대비시킨 『아마토 니주시코(大倭二十四孝)』나, 중국 고승과 일본 고승을 1대 1로 대비시킨 『샤쿠시 니주시코(釈氏二十四孝)』 등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일본을 중국과 대등하게 놓고 보는 자국 의식인 혼초(本朝) 의식이 일본의 인명 크루시에서는 보인다. 이에 대해서는 인물 구성과 배열의 관점에서 다시 접근할 필요가 있으며 다음 논고에서 다루고자 한다.
- 10) 박경신 앞의 책, 1998b, 16~22쪽, “武臣姓名禹貢, 出爲節度使, 客有戲者曰, 「君當以金滕爲評事, 李洪範爲虞侯, 咸有一爲軍官, 禹曰, 若得三賢爲僚佐, 當使汎柏舟標有梅嘒小星三妓薦枕, 客曰, 君可謂敦詩書, 古之名將矣”

첫 대목이다. ⑥혜소성(嘒小星 - 반짝반짝 작은 별)은 아근하며 날밤을 지새운 관리가 새벽녘에 서둘러 이동하는 모습을 그린 시의 첫 대목에 나오는 ‘혜피소성(嘒彼小星)’을 의식한 것이다.

〈표 5〉

『書經』			『詩經』		
①金勝	②李洪範	③咸有一	④汎柏舟	⑤標有梅	⑥嘒小星

그런데 이 이야기에서의 이름 열거 순서에 어떤 기준이 작동하였는지는 명확하지 않다. 목록 순서를 확인해 보았지만, 그 이유를 설명할 만한 부분은 확인되지 않았다. 『서경(書經)』의 경우, 우서(虞書)편(총5장), 하서(夏書)편(총4장), 상서(商書)편(총17장), 주서(周書)편(총32장)의 4서 구성인데, 이 이야기에 나오는 3명의 이름 열거 순서(①→②→③)와 ①금등편(주서 제8장) ②홍범편(주서 제6장), 그리고 ③함유일덕편(상서 제8장)의 『서경(書經)』에서의 목차 순서(③→②→①)는 정반대이다.

또 『시경(詩經)』은 국풍(國風) 15편, 소아(小雅) 8편, 대아(大雅) 3편, 송(頌) 3편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이야기에 나온 이름과 관련된 부분은 ④범백주(국풍3 패풍(邶風)편 제1장)와 ⑤표유매(국풍2 소남(召南)편 제9장), 그리고 ⑥혜소성(국풍2 소남(召南)편 제10장)으로, 『시경(詩經)』에서의 목차 순서(⑤→⑥→④)와 불일치하다.

그렇다면 이 이야기에서는 어떤 기준에서 이러한 열거 순서가 나온 것일까? 『시경(詩經)』관련 이름(④범백주→⑤표유매→⑥혜소성)의 열거 순서 기준은 알 수 없으나 『서경(書經)』 관련 이름(①금등→②이홍범→③함유일)의 열거 순서 기준은 어느 정도 짐작이 가능하다. 절도사(종2품)를 보좌하는 3명의 열거 순서는 당시의 관직 품계 서열대로라면 ②우후(종4품)→①평사(정6품)→③군관(종6품) 순이어야 한다. 하지만 이 이야기에서는 ①평사→②우후→③군관 순으로, 열거 순서와 관직 품계 서열이 서로 일치하지 않는다.

필자는 실제 권력이나 위세에 있어 ①평사가 ②우후보다 우위였다는 사실에 주목하였다. 왜냐하면, 정약용의 『목민심서(牧民心書)』에서는 품계가 훨씬 낮음에도 불구하고 ①문신 출신인 평사를 ②무신 출신인 우후보다 훨씬 우대하는 폐습을 익히 지적하고 있기 때문이다.¹¹⁾ 군수 물자의 출납과 인사고과를 담당하는 문관인 평사는 무관인 절도사를 견제할 수 있는 사실상의 실세라 할 수 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에서의 무신에 대한 홀대와 천시, 그리고 문신에 대한 우대와 중시 풍조는 고려 시대의 정중부 무신의 난을 촉발하기도 하였던 뿌리 깊은 폐습이다. 그리고 당시의 이러한 문무관 차별 풍토가 품계 서열과 일치하지 않는 이러한 이름 열거 순서로 나타나게 된 것은 아닐까 생각된다. 또 다른 예를 보자. 『동국골계전』 제186화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보인다.

11) 이정섭(역), 『목민심서』 「봉공(奉公) 6조 - 제3조 예제」, 한국고전번역원 한국고전종합DB, 1986, “살피건대, 요즘 품속에 우후에게는 평등으로 대우하고, 도사·평사에게는 사신과 같이 대우하는데, - 도사·평사는 보좌하는 관직이요, 봉명사신(奉命使臣)이 아니다. - 저 우후는 무인인 까닭에 그들에 대한 대우는 국가의 법전보다 낮게 하고, 이 도사·평사들은 문신이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대우는 국가의 법전보다 지나치니 다 폐속(弊俗)이다.”

사문 윤 선생은 우스갯소리를 잘하였는데, 일찍이 말하였다. “오늘날의 형제들은 모두 체제를 소유하고 있다. ❶ **황 치신, 황 보신, 황 수신**은 갈고(羯鼓, 작은 장구) 형제이니, 이는 양면이 넓고 중앙이 가는 것을 의미한다. ❷ **신 맹주, 신 중주, 신 숙주, 신 송주, 신 말주**는 항아리 형제이니, 이는 위아래가 뾰족하고 허리와 복부가 큰 것을 의미한다. ❸ **최형, 최화, 최항**은 저울추 형제이니, 위는 뾰족하고 아래는 넓음을 의미한다. ❹ **양정, 양지, 양형**은 송곳 형제이니, 위는 넓고 아래는 뾰족한 것을 의미한다. ❺ **홍궁, 홍응, 홍칭, 홍홍** 형제는 압운자이고, ❻ **이 일원, 이 중윤, 이 정원, 이 계윤** 형제는 협운자이다. ❼ **김 안민, 김 신민, 김 인민** 형제는 평성이며, ❽ **허경, 허적, 허달** 형제는 측음이다. ❾ **정 이한, 정 이우, 정 이송** 형제와 ❿ **조 지당, 조 지주, 조 지하** 형제는 앞은 실하나 뒤는 비었으며, ⓫ **원 효연, 원 효재, 원 효이** 형제와 ⓬ **이 전지, 이 겸지, 이 순지** 형제는 앞은 비고 뒤는 실하다. ⓭ **한 서룡, 한 서봉, 한 서구** 형제는 연아체이다. ⓮ **변수, 변우, 변 오천** 형제는 악부체이니 장단이 고르지 않은 것을 의미한다.”¹²⁾

총 46명의 이름을 형제끼리 열거하고 있는데 삼 형제인 경우가 11개, 사 형제인 경우가 2개, 오 형제인 경우가 1개로, 모두 14개의 형제 그룹을 열거하였다. 형제의 이름을 열거하니 당연히 같은 성씨가 반복되는 동음 반복의 지즈쿠시가 보인다는 특징이 있다. 김씨, 이씨, 박씨가 워낙 많은 한국인 성씨의 특성상, 오늘날 한국의 대학 강의실에서는 수업 시작 전 출석부 호명 때의 인명 열거에서는 당연히 지즈쿠시가 나타나게 된다. 그 출석부가 학번순이 아닌 가나다 순인 경우는 말이다.

이 소화에서의 형제 인명 열거 순서는 당연히 형부터이지만, 14개의 형제 그룹의 조합과 배열에는 나름의 기준이 존재한다.

첫 번째로, ❶❷❸❹에서는 사물 형태의 들어가고 나온 굴곡에 형제간의 입신출세의 우열 차이를 빗대어 이름을 열거하였다. ❶의 경우, 황희 정승의 아들 삼 형제 이름을, 가운데는 가늘고 양면이 넓은 갈고(작은 장구)에 빗대어 열거하고 있다. 물론 장남부터 순서대로 열거하고 있는데, 가운데가 움푹 들어간 장구에 삼 형제를 빗댄 것은 아버지 황희 정승처럼 출세한 **첫째 황치신(판중추부사)**과 **셋째 황수신(영의정)**과는 달리, 둘째인 황보신은 출세하지 못한 것을 의식한 때문이다. 한편 ❷의 경우, 오형제 중 가장 출세한 **셋째 신숙주**를 의식하여 가운데 허리 복부가 크고 위아래가 뾰족한 항아리에 비유하였다. 그리고 ❶의 황희 정승의 아들 삼 형제의 이름 조합이 작은 장구 형태인 것과, ❷의 신숙주 오 형제 이름 조합이 항아리 형태인 것은 서로 대구를 이룬다고 할 수 있다.

❸의 경우, 삼 형제 중 **셋째인 최항**이 세조의 총애로 영의정까지 출세하였지만 위로 두 형(최형, 최화)은 각각 이조 참판과 군자감 주부에 그친 것을 빗대어 위는 가늘고 아래는 넓은 저울추에 비유하였다. 한편 ❹

12) 박경신 앞의 책, 1998b, 160~176쪽, “尹斯文先生善戲談。嘗曰：「今人之兄弟，皆有。黃致身，黃保身，黃守身，羯鼓兄弟。」言兩面廣而中央細也。「申孟舟，申仲舟，申叔舟，申松舟，申末舟，瓦甕兄弟。」言上下尖而腰腹大也。「崔衡，崔華，崔恒，稱鍾兄弟。」言上尖而下廣也。「楊汀，楊沚，楊澗，錐子兄弟。」言上廣而下尖也。「洪矜，洪應，洪稱，洪興兄弟，押韻者也。」「李一元，李中允，李貞元，李季允兄弟，協韻者也。」「金安民，金新民，金仁民兄弟，平聲也。」「許逵，許迪，許達兄弟，仄音也。」「鄭而漢，鄭而虞，鄭而宋，趙之唐，趙之周，趙之夏兄弟，前虛後實也。」「元孝然，元孝哉，元孝而，李全之，李謙之，李純之兄弟，前實後虛也。」「韓瑞龍，韓瑞鳳，韓瑞龜兄弟，演雅體也。」「邊修，邊佑，邊佑千兄弟，樂府體也。」言長短不齊也。”

의 경우, 삼 형제 중 **첫째인 양정**이 수양 대군이 보위에 오르도록 큰 공을 세운 공신인 것에 비해, 나머지 두 동생들은 그다지 두각을 드러내지 못하였음을 의식하여 위는 넓고 아래는 **뽀족한 송곳**에 비유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③과 ④ 역시 서로 대구를 이룬다. ①②③④에서는 형제간의 입신출세 우열을 네 가지 사물의 들어가고 나온 형태에 빗대어 열거했다는 공통점이 있다.

두 번째로, ⑤⑥⑦⑧에서는 각각 음운론적인 관점에서 형제들의 이름을 열거하였다. ⑤에서는 한시(漢詩)에서의 압운(둘째와 넷째 행의 끝자리 글자의 운을 서로 맞춤)처럼 형제들의 성과 이름 끝자리 글자가 모두 ‘ㅇ’ 받침으로 끝난다는 점(홍균, 홍윤, 홍칭, 홍홍)을 의식한 것이다. 한편 ⑥에서는 첫째(이일원)와 셋째(이정원)의 이름 끝 자 ‘원’이 상평성이고, 둘째(이중윤)와 넷째(이계윤)의 이름 끝 자 ‘윤’이 하평성으로 서로 통하여 쓸 수 있는 협운(원래 다른 운에 속하지만 서로 통용됨)인 것을 의식한 것이다.

⑦의 경우, 삼 형제(김안민, 김신민, 김인민)의 이름 끝 자가 모두 ‘ㄴ’으로 끝나는 평음(평상거입의 사성 중 낮고 부드러운 소리인 평성)이다. 한편 ⑧의 경우, 삼 형제의 이름(허경, 허적, 허달)이 측음(평성을 제외한 높고 격렬한 사성, 무겁고 슬픈 거성, 급하고 서두르는 입성)이다. 그리고 이는 모두 음운을 의식한 대구라 할 수 있다. ⑤⑥⑦⑧의 경우, 형제간의 입신출세 우열이 아닌, 이름자 음운을 주로 의식한 것이다.

세 번째로, ⑨⑩⑪⑫에서는 실사(實辭)와 허사(虛辭)에 속하는 글자가 들어있는 형제들의 이름을 중심으로 열거하였다.¹³⁾ ⑨⑩의 경우, ⑨첫 번째 삼 형제(정이한, 정이우, 정이송)와 ⑩두 번째 삼 형제(조지당, 조지주, 조지하)의 앞쪽 이름에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어조사 이(而)’와 ‘갈지(之)’자는 모두 허사(虛辭)인 반면, 뒤쪽 이름의 글자(한(漢)나라, 우(虞)나라, 송(宋)나라)와 (당(唐)나라, 주(周)나라, 하(夏)나라)들은 모두 실사(實辭)이다. 한편, ⑪⑫의 경우는 이와 반대로 ⑪첫 번째 삼형제(원효연, 원효재, 원효이)와 ⑫두 번째 삼형제(이전지, 이겸지, 이순지)의 뒤쪽 이름 글자들(‘그러할 연(然)’, ‘어조사 재(哉)’, ‘어조사 이(而)’와 ‘갈지(之)’자)는 허사이고, 이름 앞쪽 글자들(‘효(孝)’와 ‘전(全)’, ‘겸(謙)’, ‘순(純)’)은 실사이다. 그리고 ⑨⑩과 ⑪⑫는 허사와 실사의 전후 관계가 서로 반대인 대구를 이루고 있다. ⑨⑩⑪⑫의 경우 품사론적 관점에서 형제들의 이름에 들어간 글자들을 실사와 허사로 나누어 대구를 이루도록 열거한 것이다.

그리고 네 번째로, ⑬⑭에서는 문체의 관점에서 형제들의 이름을 열거하였다.

⑬의 경우, 삼 형제의 이름(한서룡, 한서봉, 한서군) 끝 자에는 각각, ‘용’과 ‘봉황’, 그리고 ‘거북’이 들어가는데, 이는 연아체(조수충어 등의 동물 또는 사물 이름을 풀이한 시 형식)에 해당한다. 그리고 ⑭의 경우, 삼 형제의 이름(변수, 변우, 변오천) 중 첫째와 둘째는 외자이지만 셋째는 두 자로 일치하지 않으며 이는 악부체(길이가 일정치 않은 시가 형식)에 해당함을 의식한 것이다. 그리고 이상의 내용을 표로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다.

13) 실사(實詞)란, 본래 중국어의 단어분류에서 쓴 용어로서, 개념 과정이 없이 주관적인 정(情意)만을 나타내는 허사(虛辭)에 대립되는 말이다. 허사(虛詞)란, 실사(實辭, 實詞)에 대립되는 말로, 본시 중국어의 단어분류에서 실사를 뺀 모든 단어가 이에 속한다. 글자에 독립적인 뜻을 나타내는 것을 실사(實辭)라고 하고, 조사(助詞) 접속사(接續詞) 등의 글자를 허사(虛辭)라고 한다.

〈표 6〉

①작은 장구(羯鼓)			②항아리(瓦甕)				
黃致身	黃保身	黃守身	申孟舟	申仲舟	申叔舟	申松舟	申末舟
③저울추(稱錘)				④송곳(錐子)			
崔衡	崔華	崔恒		楊汀	楊止	楊涸	
⑤압운(押韻)			⑥협운(協韻)				
洪矜	洪應	洪稱	洪興	李一元	李中允	李貞元	李季允
⑦평성(平聲)				⑧측음(仄音)			
金安民	金新民	金仁民		許逵	許迪	許達	
⑨허사+실사(虛辭+實辭)				⑩허사+실사(虛辭+實辭)			
鄭而漢	鄭而虞	鄭而宋		趙之唐	趙之周	趙之夏	
⑪실사+허사(實辭+虛辭)				⑫실사+허사(實辭+虛辭)			
元孝然	元孝哉	元孝而		李全之	李謙之	李純之	
⑬연아체(演雅體)			⑭악부체(樂府體)				
韓瑞龍	韓瑞鳳	韓瑞龜	邊修	邊佑	邊伍千		

이 이야기에서 열거된 이름들의 경우, 같은 성씨의 동음 반복이라는 지크쿠시와 더불어, 형제간의 입신출세 우열을 사물의 형태에 빗댄 방법(①②③④), 이름 글자에 대한 음운론(⑤⑥⑦⑧), 품사론(⑨⑩⑪⑫), 문체론(⑬⑭)적인 분류와 조합을 이용한 인명 즈쿠시를 동시에 전개하였다. 또, 형제의 나이순이라는 열거 순서 기준과는 별도로, 14개 그룹의 형제 이름들이 마치 한시(漢詩)처럼 서로 대구를 이루고 있다는 특징이 있다. 그러면 이번에는 일본 소화에서의 인명 열거 방법에 대해 살펴보자.

Ⅲ. 일본 소화의 인명 열거 방법

『세스이쇼(醒睡笑)』(1623년) 권2 「이름 지어 준 대부(名づけ親方)」 제17화에는 다음과 같은 인명 즈쿠시가 보인다.

이름자 품평을 하는 자리에서 어떤 이가 말하길, “옛적부터 지금까지 귀족 집안의 이름자에는 풀과 나무 이름을 붙였다고요. 보라고요! ‘①참억새 나으리(스스키 도노(薄殿))’, ‘②소나무 나으리(마쓰노키 도노(松の木殿))’, ‘③대나무 속 나으리(다케노우치 도노(竹の内殿))’, ‘④덤불 나으리(야부 도노(藪殿))’, ‘⑤이파리 안방 나으리(하무로 도노(葉室殿))’, ‘⑥버드나무 들판 나으리(야나기와라 도노(柳原

殿))가 그렇지요.” “그거 말고 또 있소.” “그게 누구요?” “누구나 하면, ⑦당산초 나으리(唐山椒殿).’지
요.”¹⁴⁾

사람 성씨나 이름에 식물이 들어가는 것은 『겐지모노가타리(源氏物語)』 54첩 권 제목에 나오는 여성들의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그 전통이 깊으며 오늘날 일본인들의 성씨에서도 식물명은 쉽게 찾아볼 수 있다.¹⁵⁾ 그리고 위의 이야기에서는 이름자 품평을 하는 자리에서 누군가가 초목(草木)이 들어 간 귀족 성씨를 열거하자, 자기도 아는 척하고 끼어든 사람이 잘못 알고 말한 일곱 번째 이름이 웃음을 자아낸다.

‘당산초(唐山椒)’의 발음은 ‘도잔쇼(とうざんしょう)’이고 ‘당재상(藤宰相)’의 발음은 ‘도사이쇼(とうさいしょう)’로 서로 비슷하다. 원래는 등나무(藤)를 의미하는 ‘당재상(藤宰相)’¹⁶⁾이 되어야 맞지만 이를 ‘당산초(唐山椒)’로 잘못 알고 있던 사람이 아는 척 나서다 무식함이 탄로 나고 말았다. 그리고 이 이야기에 나오는 식물 관련 성씨의 열거 순서는 다음과 같다.

〈표 7〉

①薄	②松	③竹	④藪	⑤葉	⑥柳	⑦藤
----	----	----	----	----	----	----

그런데 이러한 열거 순서는 다소 의외이다. 왜냐하면, 화투, 즉 일본의 하나후다(花札)에서는 이러한 식물들을 계절 순서대로 열거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이다. 위의 7개 식물 중 하나후다에 나오는 식물은 ①참억새(薄) ②소나무(松) ⑤이파리(葉, 단풍(紅葉)) ⑥버드나무(柳) ⑦등나무(藤)이다. 하나후다 같았으면 ②소나무(松 - 1월), ⑦등나무(藤 - 4월), ①참억새(薄 - 8월), ⑤이파리(葉 - 10월, 단풍(紅葉)), ⑥버드나무(柳 - 11월)의 순이었을 것이다. 따라서 이 이야기에서의 식물 관련 이름 열거 순서는 계절 순서와는 무관함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어떤 기준에 따라 이 같은 이름 열거 순서가 정해진 것일까?

필자는 앞뒤 두 개의 글자를 서로 조합하는 방법이 이용되지 않았을까 추정해 보았다. 즉, ③대나무(竹)와 ④덤불(藪)의 경우 두 글자를 합치면(③+④) 무성한 대나무 숲을 의미하는 일본어 ‘다케야부(竹藪)’가 된다. 또, ⑤이파리(葉)와 ⑥버드나무(柳) 역시 두 글자를 합치면(⑤+⑥) 여름에 잎이 무성하게 자란 버드나무를

14) 武藤禎夫 앞의 책, 1987b, 37쪽, “名字の讚嘆する時、ある者の言ふ、「昔より今に公家にハ草や木の名をつき給ふ事や。」「なにと。」「すゝき殿、松の木殿、竹の内殿、藪殿、葉室殿、柳原殿など。」「いやまたある。」「誰ぞ」と問へば、「とうざんせう殿とて。」

15) 『겐지모노가타리』의 경우, 제1첩 「기리쓰보(桐壺)」의 오동나무(桐)를 시작으로, 전체 54첩 중 26첩의 제목에 식물명이 들어가 있다. 참고로 일본인의 성씨 중에 송죽매(松竹梅)가 들어간 경우는 각각, 송(松) - 366개 109,360명, 죽(竹) - 245개 50,020명, 매(梅) - 81개 11,080명이며, 마쓰모토(松本), 다케우치(竹内), 우메다(梅田)가 각각 1위였다. 한국인의 성씨 중에서 초목이 들어간 가장 대표적인 예로는 오얏나무 이(李) 씨를 들 수 있다.

16) 후지와라(藤原)씨 혈통 중에서 가장 서열이 높은 참의(参議) 벼슬의 사람을 흔히 ‘당재상(藤宰相)’이라고 불렀는데, 『겐지모노가타리(源氏物語)』에서도 ‘당재상(藤宰相)’이 등장하는 등, 일본 역사상 이 칭호로 불린 사람은 많다. 『세이시쇼』의 작자인 안라쿠안 사쿠넨(安楽庵策伝, 1554~1642) 스님이 살았던 시기에 이 이야기가 유포되어 있던 점을 감안하면, 당시 ‘당재상(藤宰相)’으로 불렸던 후지와라씨 혈통의 다카쿠라 나가스케(高倉永相, 1531~1586)를 의식했을 가능성이 크다.

의미하는 일본어 ‘하야나기(葉柳)’가 된다. ⑦등나무(藤)의 경우, 이 이야기에서 웃음을 불러일으키기 위한 요소기에 제일 마지막에 나왔다고 할 수 있다.

문제는 ①참억새(薄)와 ②소나무(松)이다. 두 글자를 조합해도 식물 이름이 되지는 않는다. 현대 일본의 색 분류 중 ‘薄松葉色’이 있긴 하지만 ‘薄松’ 자체는 보이지 않는다. 하나후다 같았으면 1월을 상징하는 ②소나무가 8월을 상징하는 ①참억새보다 먼저 나오는 것이 맞기에 그것도 아니다. 현재로서는 두 성씨의 연결 접점을 확인하지 못하고 있지만 ‘스스키(薄)’와 ‘마쓰노키(松木)’가 같은 동음 ‘키(喜)’로 끝난다는 공통점이 있기에 언어 유희적인 관점에서 두 성씨를 연이어 열거했을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한편, 위의 이야기 다음에 나오는 제18화에는 날짐승 또는 들짐승 이름이 들어간 다음과 같은 인명 즈쿠시가 보인다.

옆에서 말하길, “귀족 가문 사람들은 새와 짐승 이름을 쓰더라고요. ‘①까마귀 집 나으리(가라스마 도노(烏丸殿))’, ‘②독수리 꼬리 나으리(와시노오 도노(鸞尾殿))’ ‘③매 사육 담당관 나으리(다카쓰카사 도노(鷹司殿))’, ‘④멧돼지 ⑤곰 나으리(이노쿠마 도노(猪熊殿))’가 그렇죠.” 이렇게 말하자 옆의 사람이 말하길, “또 있지요.” “그게 누구데요?” “⑥마테 송아지 나으리(마데노 코지 도노(万里のこうじ殿))요.”¹⁷⁾

교토는 중국의 장안을 본떠 만든 바둑판 모양의 계획도시로, 동서 13개, 남북 11개의 큰 대로인 오지(大路)가 있고, 각 대로와 대로 사이에는 작은 소로, 즉 코지(小路)가 1개 또는 3개씩 있다.¹⁸⁾ 이 이야기에서 열거된 5개의 성씨 중 ②를 제외한 나머지 4개의 성씨는 교토에 실재하는 도로명(①가라스마 코지(烏丸小路), ③다카쓰카사 코지(鷹司小路), ④이노, ⑤쿠마 코지(猪隈小路), ⑥마데노 코지(万里小路))과 관련이 있다. 참고로, 일본에서는 그 사람의 집이나 논이 위치한 곳의 지명 또는 도로명이 성씨가 되는 경우가 흔하다.¹⁹⁾ 당장 이 이야기에 나오는 도로명인 마데노 코지의 경우만 하더라도, 마데노 코지 가문의 시조인 스케미치(資通)가 이곳에 저택을 조영하고 나서 사람들이 그를 마데노 코지 나으리라고 부르던 관계로 인해 도로명이 성씨로 정착된 것이다.

하지만 이 이야기에서 이는 척 끼어들었던 사람은 마데노 코지라는 귀족 성씨의 내력을 잘 모른 채, 작은

17) 武藤禎夫 앞의 책, 1987b, 37~38쪽, “傍より申けるは、「お公家衆は鳥獸の名をこそつかせ給へ、先ず、烏丸殿、鸞尾殿、鷹司殿、猪熊殿」と言ひければ、又、側の方、「またある」。「誰ぞや。」「万里のこうじ殿の。」”

18) 일반적으로는 대로와 대로 사이에 소로인 코지(小路)가 3개씩 있지만, 황궁 근처의 동서를 가로지르는 북쪽의 특별한 대로 4개와 주작대로를 중심으로 남북을 잇는 5개의 특별한 대로 사이에는 코지(小路)가 1개씩 있다. 그 이유는 통행량 수요가 많은 곳에는 작은 도로인 코지(小路)를 3개 만드는 대신, 3개의 코지(小路)중 가운데 위치한 코지(小路) 길폭을 애초에 넓게 잡아 대로인 오지(大路)로 만들었기 때문이다.

19) 집이 강가에 위치하여 가와바타(川端)가 성씨가 되기도 하고, 자기 집 논이 마을 논 가운데에 있어 가운데 는 주인이라는 뜻으로 나카타(中田)가 성씨가 되기도 한다. 일본 다도(茶道)의 시조라 할 수 있는 센노리큐(千利休)의 명맥을 잇는 후손 3대 가문, 즉, 오모테 센케(表千家)와 우라 센케(裏千家), 그리고 무샤노코지 센케(武者小路千家)의 가문 명칭도 도로와 관련이 있다. 3대 가문의 다실이 각각 종갓집 다실인 곤니치안(今日庵)의 길 앞쪽(表)과 뒤쪽(裏), 그리고 무샤노 코지(武者小路)에 위치했기 때문에 그러한 이름이 붙었다. 우리로 치자면 남촌 나으리와 북촌 나으리, 그리고 경리단길 나으리 정도 되는 셈이다. 교토의 도로명이 귀족 가문의 성씨가 되는 것도 비슷한 경우이다.

도로를 의미하는 ‘코지(小路(코우+지))’를, 송아지를 의미하는 ‘코지(小牛(코+우지))’로 오해하고 말했다. ‘아버지가 똥에 들어가셨다’를,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셨다’로 잘못 읽은 격이다. 한편, 이 이야기에서 열거된 동물 관련 성씨의 열거 순서는 다음과 같다.

〈표 8〉

① 烏	② 鷲	③ 鷹	④ 猪 ⑤ 熊	⑥ 子牛
-----	-----	-----	---------	------

조수충어(鳥獸虫魚) 순으로 새 관련 성씨(①②③)가 먼저 열거되고 이어서 들짐승 관련 성씨(④+⑤, ⑥)가 열거되었다. ②독수리(鷲)와 ③매(鷹)는 같은 맹금류이고 ④멧돼지(猪)와 ⑤곰(熊)은 이노쿠마 코지(猪隈小路)라는 도로명으로 인해 서로 연결된다. 또 ⑥송아지는 이 이야기의 결말에서 웃음을 불러일으키는 마무리 역할을 하기에 당연히 맨 마지막에 나온다. 문제는, 왜 ①까마귀(烏)가 제일 먼저 열거되었는가 하는 점이다. 가문 서열의 높고 낮음이 성씨 열거 순서와 관계가 있는지 조사해 보았지만, 상관이 없었다.²⁰⁾ 또, 중국에서는 9품 관직 무관의 품계 서열을 새(鳥) 이름으로 나타내는 발상이 있는데(1품 학, 2품 금계, 3품 공작, 4품 기러기……) 이 이야기에서 열거된 새들은 보이지 않아 서열 관계와의 관련성 여부를 확인하지는 못했다.²¹⁾

한편, 이 이야기는 후대의 소화집인 『쇼지키바나시 오카가미(正直咄大鑑)』(1687년) 권1 제8화 「궁중의 거짓말쟁이(雲井のうそつき)」에 그 업데이트 버전이 다음과 같이 보인다.

어느 곳에 여러 사람이 모여 이야기를 주고받을 때, 뭘 물어봐도 막힘없이 각각의 질문에 죄다 답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한 사람이 말을 꺼내기를, “귀족 나으리들 이름은 과연 기품있고 높은 이름뿐인 것 같은데요. 듣자하니 새 이름이 많아요. 우선, ①독수리 꼬리 나으리(와시노오 도노(鷲尾殿)), ②까마귀 집 나으리(가라스마 도노(烏丸殿)), ③매 사육 담당관 나으리(다카쓰카사 도노(鷹司殿)) 같은 이름이 다 새 이름인 이유가 이해가 안 가네요.”라고 말하자, “그건 새 이름의 이치상, 봉황님을 모시는 귀족이니깐요. 새는 하늘을 나니까 그러한 이름을 쓰는 분을 덴조비토(天上人)라고 하지요” 라고 말하

20) ①②③의 경우, 일본 고대 성씨 중 내로라하는 명문 귀족 가문인 후지와라(藤原)씨 4대 가문 중 하나인 후지와라 홋케(藤原北家)의 혈통을 자랑하는 성씨들이다. 하지만 같은 후지와라 성씨라 하더라도 섭정이나 관백을 맡을 수 있는 가문인 셋케(摂家), 즉 성골이나 진골은 정해져 있다. 후지와라씨 중에서도 섭정이나 관백을 맡을 수 있는 가문인 셋케는 ①고노에케(近衛家) ②이치조케(一条家) ③구조케(九条家) ④다카쓰카사케(鷹司家) ⑤니조케(二条家)뿐이다. 그리고 이 이야기에 나오는 ③다카쓰카사(鷹司) 가문은 셋케로 격이 훨씬 높지만 셋케도 아닌 ①가라스마(烏丸) 가문과 ②와시노오(鷲の尾) 가문보다 뒤에 열거되기 때문이다. 메이지 유신 이후, 귀족들은 그 집안의 혈통과 권위에 따라 ① 공작, ② 후작, ③ 백작, ④ 자작, ⑤ 남작의 작위를 서열순으로 받고 화족(華族)이 되었는데, ③다카쓰카사 가문은 제일 높은 공작 작위를 받았지만 ①가라스마 가문과 ②와시노오 가문은 각각 세 번째인 백작 작위를 받았다.

21) Agency for Cultural Affairs, Government of Japan, 「Cultural Heritage Online」 <https://bunka.nii.ac.jp/heritages/detail/573636>(검색일: 2022.11.24.), “補子は清朝の文・武官が自らの階級を示すために服の胸と背に付けた四角い記章。補子のなかの鳥獸によって文・武官の別や品級を示した。文官はいずれも鳥類で、康熙三年(一六六四)以降、一品鶴、二品錦鶏、三品孔雀、四品雁、五品白かん、六品鷲、七品けいちょう、八品あん鶺鴒、九品練雀と定められた。”

자, “그럼 천상(天上) 아래쪽 이름은 쓰지 말아야 할 터인데 땅(쓰치(土))보다 아래에 있는 바다에 사는 조개류 이름을 쓰기도 하잖아요. ④**맛조개** 작은 길 나으리(마데노 코지 도노(馬刀(貝)の小路殿)), ⑤**비늘 가리비** 작은 길 나으리(니시키노 코지 도노(錦(貝)の小路殿)) 같은 분들은 조개 이름인데요?” “아 그야 그렇죠. 맛조개 나으리, 비늘 가리비 나으리는 쓰치미카도(土御門) 폐하를 모시는 귀족이잖아요” 라고 말한다. “들짐승 이름을 쓰는 귀족분도 있는데요? ⑥**상어** ⑦**소** 나으리(사메우시 도노(鮫牛殿)나 ⑧**멧돼지** ⑨**곰** 나으리(이노쿠마 도노(猪熊殿)) 같은 이름 말이죠. 이걸 어떻게 설명할 건가요?” “그분 들이야 신년 하례식 때 **시신텐(獅子ん殿)**에 나가시는 분들이니까 당연히 들짐승 이름인 거죠.” 하고 말했다.²²⁾

『세이시이쇼』에서는 새 이름(까마귀→독수리→매) 관련 성씨와 짐승 이름(멧돼지→곰→송아지) 관련 성씨 순으로 열거했다고 한다면, 『쇼지키바나시 오카가미』에서는 거기에 어패류 관련 성씨 3개(맛조개/비늘 가리비/상어)를 새로 추가한 다음과 같은 순서(①독수리→②까마귀→③매|④맛조개→⑤비늘 가리비→⑥상어|⑦소→⑧멧돼지⑨곰)로 열거하고 있다.

〈표 9〉

醒睡	鳥	鷲	鷹				猪	熊	小牛
正直	①鷲	②鳥	③鷹	④馬刀貝	⑤錦貝	⑥鮫	⑦牛	⑧猪	⑨熊

새로 추가된 맛조개 나으리(④**마데가이(馬刀(貝)の小路殿)**)와 비늘 가리비 작은 길 나으리(⑤**니시키(가이)노 코지 도노(錦(貝)の小路殿)**), 그리고 상어소 나으리(⑥**사메** ⑦**우시** 도노(鮫牛殿))는 각각 교토의 작은 길인 ④**마데노 코지(万里小路)**와 ⑤**니시키 코지(錦小路)**, 그리고 ⑥**사메** ⑦**우시** 코지(左女(佐目)牛小路)를 의식한 것이다.

특히, ⑥**상어** ⑦**소** 나으리라는 이름의 경우, ⑥**사메(상어)**와 ⑦**우시(소)**의 조합(⑥+⑦)을 통하여 사메우시 코지(左女(佐目)牛小路)라는 도로 지명을 나타내었는데, 이러한 연결 조합 형태는 일본의 속담이나 언어 유희에서 흔히 찾아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전날 회식에서 술에 잔뜩 취해 실수를 한 부하 직원에게 화가 난 상사가, “술 깨면 와라(사메타라코이(醒めたら来い))!”라고 말하는 경우, 이때의 ‘**사메(상어(鮫))**’와 ‘**타라(대구(鱈))**’, 그리고 ‘**코이(잉어(鯉))**’는 모두 물고기 이름과 동음이다.²³⁾

22) 武藤禎夫 앞의 책, 1987e, 247~248쪽, “有所に大勢寄合話しける折節、何事を問いかけても詰まらず、それぞれに話す者ありければ、一人の申しだしけるは、「公家衆などの御名は、成程気高き名ばかりありそふなものじやに、聞くに、鳥の名が多い。先づ鷲の尾殿、鳥丸殿、鷹司殿などは、皆鳥の名でござるは、合点が行かぬ」と問ふ。「それは鳥の名が理、鳳凰様へ仕へさしやる公家衆じや。鳥は空を飛ぶものなれば、そのやうな名をつかしやる方を、天上人と言ふ」といへば、「それならば、下の名はつかしやらぬはずじやに、土より下にある海に住む、貝類の類を名につかしつたがござる。馬刀の小路、辛螺きの小路殿などは、貝の名でござる。」「そのはず。錦小路、万里小路殿は、土御門へ何公の方々じや」といふ。「さてまた、畜生の名をつかしつたがござる。佐目牛殿、猪熊殿。是はどうしたものでござる。」「このかたは御節会などの折りから、出御の時、獅子い殿へつめさしやる衆者さかい、けだ物の名でござる」と云た。”

23) 금영진, 「일본 속담(諺)속의 동물조합」, 『日本學研究』 46, 단국대학교 일본연구소, 2015a, 289~309쪽. 금영진, 「일본 소화

참고로, 에도 하나시본에 보이는 사람 이름을 어패류 이름과 연관시킨 소화 중 가장 오래된 것으로 『기겐 요키슈(戲言養氣集)』(1615년경) 하권 제3화를 들 수 있다. 자신이 모시는 주군이 지방 관리인 가미(守)로 임명되자 무식한 부하가 자기 주군의 새로운 이름을 어패류 이름으로 오해한 이야기다. 사사베(雀部) ‘아와지 노 가미(淡路守)’의 부하는 자기 주군이 ‘아와비노 가미(전복의 신(鮑の神))’이 되었다고 자랑한다. 그러자 이 말을 들은 ‘아마고(尼子) 주센지(壽千寺)의 부하는 자기 주군은 ‘나마코(해삼(海鼠))’ 라고 답하는 것이다. 각각 지명 ‘아와지(淡路)’를 전복인 ‘아와비(鮑)’로, 성씨인 ‘아마고(尼子)’를 해삼인 ‘나마코(海鼠)’로 잘못 들은 것이다.²⁴⁾ 이 이야기에서는 또한, ‘사사베(雀部)’의 발음이 어패류 소리를 의미하는 일본어 ‘사자에(榮螺)’와 유사한 점을 의식한 것으로도 보인다.

한편, 『소지키마나시 오카가미』의 이 이야기에서는 ‘하늘(새)→바다(어패류)→육지(들짐승)’라는 각각의 동물들의 활동 공간을 세 그룹으로 나누어 순서대로 이름을 열거했음을 알 수 있다. 새 이름 관련 귀족 성씨 ①독수리 ②까마귀 ③매)가 많은 이유에 대해서는 높은 하늘 위, 즉 ‘덴조(天上)’를 나는 새가 ‘덴조(殿上)人, 천황 거처에 오를 수 있는 3품 이상 벼슬의 당상관. 덴조비토(天上人)와 동음)로서 봉황(鳳凰)을 모시기 때문이라고 답한다.²⁵⁾ 또, 어패류 관련 귀족 성씨(④맛조개 ⑤비늘 가리비 ⑥상어)가 많은 이유에 대해서는, 땅, 즉 ‘쓰치(土) 보다 더 아래인 바다에서 ‘쓰치(土)미카도(土御門) 천황(1195~1231, 제83대 천황)을 받들기 위함이라는 억지 설명으로 웃음을 불러일으킨다.

그런데, 이 이야기의 결말 부분에는 또 한 마리의 동물이 등장하는데, 바로 백수의 왕인 사자(獅子, 일본어 발음은 시시(シシ))이다. 들짐승 관련 귀족 성씨(⑦소 ⑧멧돼지 ⑨곰)가 많은 이유에 대해서는 귀족들이 신년 하례식을 위해 천황이 있는 황궁의 정전인 ‘시신덴(紫宸殿)’에 모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한다. 시신덴은 우리로 치자면 조정 대신들이 왕 앞에 모여 조회를 하는 경복궁의 근정전 정도에 해당한다. 이야기의 결말 부분에서 ‘시신(紫宸殿)’의 한자를 동음인 시시(獅子)로 고치고 ‘은(ん)’을 붙여 ‘시신(시시+L)’덴(獅子ん殿)이 되었다. 들짐승 이름과 관련된 성씨의 귀족들이 천황이 조회를 여는 공간인 시신덴(紫宸殿)에 모이는 것을 들짐승(성씨)들이 백수의 왕인 ‘사자 나으리(獅子ん殿)’ 앞에 모인다는 언어유희로 웃음을 자아낸 것이다.

속의 동물조합, 『외국문학연구』 60, 한국외국어대학교 외국문학연구소, 2015b, 31~55쪽. 금영진, 「일본 도상 문화를 통해 본 동물 조합의 방법과 의미」, 『비교일본학』(34), 한양대학교 국제 비교 일본학 연구소, 2015c, 21~41쪽. 금영진, 「동아시아 소화(笑話)·속담(俗談) 속의 동물 조합 상징성 비교」, 『비교문학연구』 42, 경희대학교 비교문화연구소, 2016c, 205~240쪽.

- 24) 武藤禎夫 앞의 책, 1987a, 49쪽, “其物に付てその心あらざれば似たる事を聞たかう事天正のすゑの事なるに、関白秀次公の家臣の人々、新らしき諸大夫になりし時、其若党共、聚楽の番所の脇に集ひ居て、語るやうは、「我主殿は今度神に成られたるが、社参の衆も、目出度ふ御座あるとて、樽酒をば持て参れとも、未ださんせんなどはみえ侍らぬ」といへば、「何の神にか御なり候ぞ」と問に、「さゝへ鮑の神になられた」と答たり。「それは少なまくさひかみぢや。さりながら是は御意ならんほどに了簡もなし。うちの主殿は昔から海鼠の寿千寺と云来たりしなり」と云た。評して云、「万民を憂うる心は弱く、利を思ふ心強き人を宰相の職に挙用ゐたらば、雀部淡路守を鮑の神、尼子寿千寺を海鼠と聴違る害あらん。善悪相胎之因、智之明にあらずんば嘆。」”
- 25) 새들이 봉황을 모신다는 이러한 발상은 중국 문학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정충권, 『홍보전·홍보가·웅고집전』, 한국고전번역원 008, 문학동네, 2010, 389쪽, “중국 전설상의 임금인 소호금천(少昊金天)은 어머니인 황아(黃娥)와 아버지인 백제(白帝)의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로, 후에 장성하여 동방의 바다 밖으로 가 나라를 만들고 소호국이름을 붙였는데 소호의 신하는 모두 각종 새였다고 한다. 즉, 봉황에 의해 다스려지는 신하인 새로 제비, 까치, 종달새, 금계(錦鷄)를 들고 있는데, 제비가 붉, 까치가 여름, 종달새가 가을, 금계가 겨울을 각각 담당하는 것이다.”

한편, 『세이시이쇼』의 이야기에서는 원래 **까마귀**→**독수리**→**매**의 순서였는데 『쇼지키바나시 오카가미』에서 **①독수리**→**②까마귀**→**③매**의 순서로 바뀐 것은 전승 과정에서의 우연일 수도 있지만, 필자는 까마귀와 매의 새로운 조합을 의식한 의도적인 열거 순서의 변경이 아닐까 추정해 보았다. 왜냐하면, 1623년에 성립한 『세이시이쇼』와 1687년에 간행된 『쇼지키바나시 오카가미』의 두 시기 사이에 간행된 하이카이 가론서(俳諧歌論書) 『게후키구사(毛吹草)』(1645년)에는 까마귀와 매의 새로운 조합이 보이기 때문이다. “매는 현명하지만 까마귀의 비웃음을 산다. (鷹は賢けれど鳥に笑わる)”라는 표현이 그것이다.

또, 『세이시이쇼』에서는 들짐승 관련 이름 중에서 소가 제일 마지막에 열거되었는데(멧돼지→곰→**소(송아지)**), 『쇼지키바나시 오카가미』에서는 소(우시)가 들짐승 관련 이름 중에서 가장 먼저 나온다(**⑦소**→**⑧멧돼지**→**⑨곰**). 그리고 그 이유는 바로 그 앞에 나오는 **⑥상어(사메)**와 연결되어 사메우시 코지(鯨牛(佐女牛)小路)라는 작은 도로의 지명을 완성하기 때문이다. 즉 어패류(**④⑤⑥**)와 들짐승(**⑦⑧⑨**) 관련 성씨 그룹 간의 연결고리 역할을 **⑦소**가 하기에 들짐승 중 가장 먼저 열거되는 것이다. 조수층어 관련 이름과 동음의 도로 지명 발음이 유사한 점을 복합적으로 이용한 이러한 연결조합은 일본 사회의 한 특징이라 할 수 있다.

한편, 에도 하나시본 『로큐 오키미야게(露休置土産)』(1707년) 권5, 제5화 「유행하는 것은 절 이름 산 이름(流行るものには寺号山号)」에서는 두 개의 이름이 연결조합을 이루는 다음과 같은 인명 열거가 보인다.

에도 오사카 교토 세 지역 사람이 야바세(矢橋)에서 배에 올라 제각각 자기 지역 자랑을 한다. 에도 사람이 말하길, “에도 사람들은 뭐든 잘나가는 사람한테 무슨 산(山)무슨 지(寺)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에도 제일의 명의(名医)인 후쿠안 나으리(福安殿)라고 있는데, 그 사람은 **①의왕산 야쿠시지(医王山 薬師寺)**라고 불리며 특히나 잘나가지요.”라고 말하자 오사카 사람 듣고는, “과연 어디나 다 똑같군요. 오사카의 가부키 배우 중에 **②은주산 우헤지(四十三 宇平次)**라는 배우가 있지요.” 교토사람 듣고는, “정말이지 드물지 않은 일이군요. 교토의 시마바라(嶋原)에는 **③미나산 고존지(備さん ござん)**라는 유녀가 있습니다.”²⁶⁾

①의왕산 야쿠시지(医王山 薬師寺)의 경우, 에도 제일의 명의인 후쿠안 나으리(福安殿)의 이름을 병자를 고쳐주는 약사여래(薬師如来)를 모시는 절의 불교식 명칭으로 바꾼 것이다. 예를 들어 ‘아사쿠사 센소지(지명+절)’의 정식 명칭은 ‘**킨류산(金龍山)센소지(浅草寺)(○○山+○○寺)**’이다. 그리고 이는 한국도 마찬가지로 ‘합천 해인사’의 불교에서의 정식 명칭은 ‘**가야산 해인사**’이다.

②은주산 우헤지(四十三 宇平次)의 경우 1695년에 오사카(大坂)의 이wai 한시로 좌(岩井半四郎座)에서 여자 역할을 하여 호평을 받은 가부키 배우 다케나카 쇼다유(竹中庄太夫)의 본명이 **우헤이지(宇平次)**이기에 **○○지(○○寺)**에 맞추었고 **은주산(四十三)** 역시 **○○산(○○山)**에 맞춘 것이다.²⁷⁾

26) 武藤禎夫 앞의 책, 1987g, 61쪽, “江戸大坂京三ヶ所のもの、矢橋の船に乗、面面の在所のせんしやう咄。江戸の人言ひけるは、「江戸のかたには、何にても流行る人には山号寺号を付ます。江戸中の名医福安殿と申がござる。此人を医王山薬師寺と申て、ことの外流行ります」といへば、大坂の人聞、「成程いつかたもおなじ事。大坂の芝居に、四十三宇平次といふ役者がござる。」京の人聞、「いやはや、珍しからぬ事。京の嶋原には、みなさんござんじと申太夫がござる。」”

③미나산 고존지(皆さん ぞ存知)는 “여러분 아시죠?”라는 의미의 일본어에 들어있는 발음인 ‘산(さん)’과 ‘지(知)’가 절 명칭(○○山(산)+○○寺(지))처럼 들리는 것을 의식한 억지 작명으로 물론 실제로 이런 이름의 유녀는 없다. 마지막 세 번째 인물의 이름이 웃음을 불러일으키는 오치(落ち), 즉 클라이막스이기 때문에 이런 얼토당토않은 이름이 맨 마지막에 열거된 것이다. 그리고 이 이야기에서의 이름 열거 순서의 기준이 되는 것은 이야기를 나누는 세 사람의 출신 지역이다.

〈표 10〉

①에도(江戸) 의사	②오사카(大阪) 가부키 배우	③교토(京) 유녀
医王山(산)薬師寺(지)	四十三(산)字平次(지)	皆さん(산)ぞ存知(지)

에도 시대의 3대 도시인 산토(三都- 에도, 오사카, 교토)를 의식한 이 이야기에서는 에도(江戸)의 의사→오사카(大阪)의 가부키 배우→교토(京)의 유녀 순으로 이름을 열거하였는데, 에도부터 먼저 열거하는 이러한 방식은 친황이 있는 교토부터 열거하는 전통적인 방식에 반하는 것이다. 당시 오사카에서 활약한 우키요조시(浮世草子) 작가인 사이카쿠(西鶴)가 쓴 소설 작품을 보면, 교토부터 열거하는 방식(①京→大阪→江戸 또는 ②京→江戸→大阪)이 에도부터 열거하는 방식(③江戸→京→大阪 또는 ④江戸→大阪→京)보다 훨씬 많았음을 알 수 있다. 사이카쿠(西鶴)의 작품 속에 보이는 산토(三都) 의식을 분석한 모리타 마사야(森田雅也)의 연구 성과를 표로 정리하여 소개하자면 다음과 같다.²⁸⁾

〈표 11〉

『難波鑑』(1680) 卷二	②京→江戸→大阪
『好色一代男』(1682) 卷六 第六話	②京→江戸→大阪
『諸艶大鑑』(1684) 卷一 第一話	③江戸→京→大阪
『色里三所世帯』(1688) 上(京の巻) 一	①京→大阪→江戸

27) 「デジタル版 日本人名大辞典+Plus」 「竹中庄太夫」의 解説
<https://kotobank.jp/word/%E7%AB%B9%E4%B8%AD%E5%BA%84%E5%A4%AA%E5%A4%AB-1088750> (검색일 : 2022.11.24.) “竹中庄太夫。江戸時代前期-中期の歌舞伎役者。竹中吉三郎の門下で、元禄(げんろく)の中ごろ若女方として京都の舞台をふみ、一時江戸でも出演。京都にもどったあと花井あづまと改名、元禄8年(1695)大阪岩井半四郎座で「茜(あかね)の色揚」の三勝(さんかつ)役で好評をえた。本名は字平次。”

28) 森田雅也, 「『色里三所世帯』と京都・大阪・江戸-西鶴と貞享期の読者の三都意識をめぐって-」, 『日本文藝研究』 55: 4, 2004, 25~46쪽. 참고로, 인구 100만 도시로까지 성장한 에도에 대한 라이벌 의식과 더불어 친황이 있는 교토 바로 옆에 있는 오사카가 비록 에도막부 장군이 있기는 하지만 교토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에도보다는 위라는 우월감이 전혀 없지는 않았을 것이다. 즉 오사카는 교토와 더불어 가미가타(上方) 지방인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교토를 정점으로 한 서열 의식은 오늘날 일본 간사이 지방에서의 지역 명칭 열거 순서에서도 확인된다. 교토(京都)와 오사카(大阪)를 통틀어 게이한(京阪)이라 부르고, 오사카(大阪)와 고베(神戸)를 통틀어 한신(阪神)이라고 부르는 것이 그러하다. 1995년에 발생한 고베 대지진을 굳이 한신·아와지 대진재(阪神·淡路大震災)라고 부른 것에도 그러한 서열 의식은 엿보이는 것이다.

『色里三所世帯』(1688) 上(京の巻) 五	①京→大坂→江戸
『色里三所世帯』(1688) 下(江戸の巻) 三	①京→大坂→江戸
『色里三所世帯』(1688) 下(江戸の巻)三	①京→大坂→江戸

사이카쿠의 대표작인 『고쇼쿠 이치다이 오토코(好色一代男)』 권6 제6화에서는 교토의 대표적인 유곽인 시마바라(嶋原) 다음으로 에도의 요시와라(吉原) 유곽을 열거하고, 오사카의 대표적인 유곽인 신마치(新町)를 제일 마지막에 열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②京→江戸→大坂).

그런데 『쇼엔 오카가미(諸艶大鑑)』 권1 제1화에서는 교토를 제치고 에도의 요시와라를 제일 먼저 열거하기까지 했던(③江戸→京→大坂) 사이카쿠가, 무슨 영문인지 그 4년 뒤 작품인 『이로자토 미토코로 제타이(色里三所世帯)』에서는 상중하 3권(上-京の巻/中-大坂の巻/下-江戸の巻)을 교토부터 열거하고 에도를 마지막에 열거하였다. 그 이유는 알려져 있지 않지만, 권 구성뿐만 아니라 3대 도시의 유곽을 언급하는 본문 내용에서도 교토부터 시작하는 이러한 열거 순서(①京→大坂→江戸)가 지켜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²⁹⁾

한편 이에 반해 쓰유노고로베에(露の五郎兵衛)의 유고작인 『로큐 오키미야게(露休置土産)』에서는 에도의 명의 이름부터 열거하고 뒤이어 오사카의 가부키 배우와 교토의 유녀 이름을 열거하는 정반대의 열거 순서(④江戸→大坂→京)를 택하였다. 그리고 그 이유로는 당시의 하나시본에서 종래와는 반대되는 열거 순서가 보이기 시작한 것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 필자가 조사한 바로는, 1700년대 이전의 사이카쿠 작품에서 보이던 교토부터 시작하는 열거 순서(①京→大坂→江戸 또는 ②京→江戸→大坂)가, 그 이후의 하나시본에서는 에도부터 시작하는 새로운 열거 순서(③江戸→京→大坂 또는 ④江戸→大坂→京)가 나타난 것이다.³⁰⁾

〈표 12〉

『竹斎はなし』(1672)	②京→江戸→大坂
『初音草嘶大鑑』(1698)	③江戸→京→大坂
『諸国落首咄』(1698)	④江戸→大坂→京
『露休置土産』(1707)	④江戸→大坂→京
『喜美談語』(1796)	①京→大坂→江戸
『庚申講』(1797)	②京→江戸→大坂
『三都寄合嘶』(1858)	③江戸→京→大坂

29) 森田雅也 위의 논문, 2004, 25~46쪽.

30) 武藤禎夫 앞의 책, 1987c, 228쪽, “京江戸大坂長崎より” 『竹斎はなし』(②) 및 武藤禎夫 앞의 책, 1987h, 132쪽, “京江戸大坂三ヶ津” 『庚申講』(②), 武藤禎夫 앞의 책, 1987c, 10쪽, “京大坂江戸の者三人寄合ている所へ” 『喜美談語』(①)에서는 교토가 먼저 열거되는 종래의 형태가 보이지만, 에도가 먼저 열거되는 새로운 형태가 나타난 것이다. 『露休置土産』의 경우 외에도, 武藤禎夫 앞의 책, 1987f, 111쪽, “江戸京大坂におゐて善光寺” 『初音草嘶大鑑』(③) 및 武藤禎夫 앞의 책, 1987d, 338쪽, “江戸大坂京三国の牢人” 『諸国落首咄』(④)에서는 에도가 먼저 열거된다. 또, 武藤禎夫 앞의 책, 1987i, 224~242쪽에 의하면, 『三都寄合嘶』(③)에서는 에도 → 교토 → 오사카 관련 이야기 순으로 배열하고 마지막에 에도 이야기를 다시 배열하였다.

일반적으로는 먼저 열거되는 도시가 나중에 열거되는 도시보다 더 뛰어나다는 서열(라이벌) 관념이 산토 인식에는 보이지만, 하나시본에서의 경우, 열거 순서가 빠르다고 해서 반드시 더 높은 서열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위에서 소개한 이야기에서의 세 인물(에도 의사, 오사카 가부키 배우, 교토 유녀) 사이에는, 한자리에 모인 세 지역 출신 사람들의 자기 지역 자랑이라는 경쟁 관계가 성립한다. 그리고 앞에서 먼저 자기 지역 자랑을 한 에도와 오사카 출신 사람에게 자기 싫은 마지막 세 번째 사람(교토 출신)의 교토 유녀 이름 소개는, 이 이야기에서의 웃음을 불러일으키는 소위 오치(落ち)에 해당한다.

즉 앞에서 먼저 열거되는 에도 의사가 오프닝 가수라면, 거기에 질세라 두 번째로 열거된 오사카 배우는 중견 가수에 해당하며, 마지막 세 번째로 언급되는 교토 유녀는, 곧 20세기 후반 한국 최고의 거물 가수인 조용필이 되는 셈이다. “조용필은 제일 마지막에 나온다”라는 우스갯소리는 다 이유가 있는 것이다. 즉, 자기 지역 자랑 경쟁에 있어서 마지막에 열거되는 교토의 엉터리 유녀 이름이 이 이야기에서는 웃음의 핵심이자 하이라이트이다. 일반적으로는 제일 먼저 언급되는 에도 의사의 서열이 높을 것 같지만, 이 소화에서는 오히려 제일 마지막에 언급되는 교토 유녀의 서열이 더 높다.

제일 마지막에 나와 웃기는 사람이 그 이야기에서의 주인공인 이러한 패턴은 소화의 전형적인 결말 패턴이기도 하다. 일본 소화의 구연 예능 형태인 라쿠고(落語) 공연에서의 구연자 발표 순서에서도 이러한 패턴은 또한 확인된다. 대개 라쿠고 공연에서는 제일 처음에 제자인 젠자(前座)가 나오고, 이어서 중견급인 후타쓰메(二つ目)가 나오며, 공연의 제일 마지막 순서에 베테랑인 신우치(真打), 즉 그들의 스승이 나온다. 등장 순서가 나중일수록 오히려 중요도나 서열이 올라가는 것이다.

제일 마지막에 열거되는 이름이 웃음을 자아내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소화의 결말인 오치(落ち)를 통하여 고양된 이야기의 긴장을 급격히 떨어뜨리며 마무리 짓는 라쿠고(落語)의 특성이자, 소화의 전형적인 모습이기도 하다. 즉, 인명 열거 순서에 있어서 가장 마지막에 열거되는 이름이 웃음을 발생시키는 측면에 있어서는 오히려 가장 중요한 것이다. 따라서 이 이야기에서의 열거 순서가 제일 나중이라고 해서 교토 유녀의 중요도나 서열이 반드시 낮지는 않다는 점 유의할 필요가 있다.

비슷한 예를 들자면, 에도 후기의 작가인 도즈이샤(東隨舎)가 쓴, 『기키가키 아마요노 도모(聞書雨夜友)』(1805) 「외아들에게 이상한 이름을 붙여주고 후회한 이야기(一子に異名を付けて後悔せし話)」에는 『김수한무거북이와 두루미』를 연상시키는 긴 이름에 얽힌 이야기가 보인다.³¹⁾

아들의 장수를 기원한 아버지가 유학자를 찾아가 긴 이름 작명을 부탁하자, 유학자는 “다이가쿠(大学) 슈

31) 「長い名の子」 <https://ja.wikipedia.org/wiki/>(검색일: 2022.11.24.) “ある者が自分の男子に珍しい長い名前を付けたいと考えた。知り合いの儒学者に相談したところ、儒学者はまず「百人一首にも『法性寺入道前関白太政大臣』などという長い名前がある」と教えたうえで、「大学朱熹章句子程子曰大学孔子之遺書而初学入徳之門兵衛様」が良からうと薦めた。ところが同席していた和歌の先生がこれを嘲笑し、日本人なのだから漢文ではなく和歌にすべきだとして「ながきよのをのねぶりのみなめざめなみのりふねのをとのよしべい」が良い、これは年越しの枕に敷く宝船の絵に書いてある歌だからめでたい、と薦めた。こんどは儒学者がこれを嘲笑したため、和歌先生と儒学者が口論となった。依頼者は呆れて、めでたい名を付けてもらいたいにお二人が喧嘩されては困る、名付けは自分でやる、と言い出して「敵々仁に敵須留御坊蒼臨坊惣高入道播磨之別当茶碗茶臼之挽木之飛与小助」

키(朱熹) 쇼쿠(章句) 시테이(子程) 시노이와쿠(子曰) 다이가쿠(大學) 고시노이쇼니시테(孔子之遺書而) 쇼가쿠(初學) 도쿠이루노(入德之) 문효에(門兵衛)³²⁾라는 이름을 지어 준다. 이는 사서오경(四書五經)에 대하여 주희(朱熹)가 쓴 주석서인 『사서집주(四書集注)』 대학장구(大學章句)의 제목과 도입부를 그대로 옮긴 것이다. 중국 고전의 문구를 사람 이름으로 의인화한 이러한 경우는 『시경』과 『서경』을 의식한 『동국골계전』 제136화의 인명 즈쿠시에서도 이미 확인된 바 있다.

그러자 마침 그 자리에서 있던 와카(和歌) 노래 선생이 이를 듣고는, 일본인에게는 한문이 아닌 일본 노래인 와카로 이름을 지어야 한다면, “나가키요노(ながきよの) 도오노네부리노(とをのねふりの) 미나메자메(みなめざめ) 나미노리후네노(なみのりふねの) 오토노요시베이(をとのよしべい)”³³⁾라는 이름을 지어 주는데, 이는 앞에서부터 읽어도 뒤에서부터 거꾸로 읽어도 똑같은 회문(回文) 형식의 와카이다.³⁴⁾

두 사람이 서로 다투자 곤란해진 아버지는 스스로 다음과 같은 이름을 짓는다. “**데키데키니(敵々仁) 데키스루오보(敵須留御坊) 소립보(蒼臨坊) 소다카뉴도(惣高入道) 하리마노벳도(播磨之別当) 자완자우스노(茶碗茶臼之) 히키기노(挽木之) 효스케(飛与小助)**” 동음 반복의 지즈쿠시가 요소가 들어간 『김수한무』 계통의 이름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이 이야기에서는 마지막 세 번째로 열거된 이 이름이 웃음을 불러 일으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단, 소화에서의 인명 열거 순서에서 우열이나 서열 관계와는 별도로 가장 마지막에 열거되는 이름이 웃음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이런 점은, 비단 일본 소화만의 특징은 아니다. 왜냐하면 앞장에서 소개한 『동국골계전』 제127화에서도, 가장 마지막에 열거된 ‘민효열’이라는 인명이 웃음을 불러일으키며 이야기를 마무리 짓는 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했기 때문이다.

IV. 결 론

본고에서는 한일 양국 소화에 보이는 인명 즈쿠시의 열거 방법에 대하여 고찰해 보았다.

먼저 한국 소화의 경우, 십간(十干)과 십이지(十二支), 숫자, 『시경(詩經)』과 『서경(書經)』, 형제간의 입신출세 우열 비교, 이름자의 음운론적, 품사론적, 문체론적 분석과 이름 그룹 간의 대구를 의식한 인명 열거 방법이 확인되었다. 또 일본 소화의 경우, 이로하(いろは) 순서, 동식물 조수충어(鳥獸虫魚) 관련 성씨와 교토 도로 지명과의 동음 연결조합, 그리고 예도, 오사카, 교토의 3대 도시 간의 우열 경쟁의식 및 소화의 마무리 방식인 오치(落ち)로서 핵심 인명을 제일 마지막에 열거하는 방법이 확인되었다. 그리고 그러한 방법상의

32) 원문에서의 “정자 선생님이 말씀하시기를 대학은 공자의 학문이 남긴 글이니, (대학을) 처음 배우는 자가 덕에 들어가는 문이다. (子程子曰大學孔子之遺書而初學入德之門也)”를 이용하여 사람 이름으로 변형하였다.

33) 의미를 해석하자면 다음과 같다. “길고 긴 세상(이 밤)/아득하니 잠들다/모두 잠 깨어/땀전에 부딪히는/짜도 소리 좋도다 (永き世の遠の眠りの/みな目ざめ/波乗り船の/音のよきかな)”

34) 「나가키/①요②노/③도④오⑤노⑥네⑦부⑧리⑨노/⑩미⑪나⑫메⑬자⑭메/⑮나⑯미⑰노⑱리⑲후⑳네㉑노/㉒오㉓토㉔노 ㉕요/시베이」에서 노래의 중간 지점인 ㉓「자(ざ)」를 반환점으로 하여 다시 원래대로 첫 출발점인 ㉕「요(よ)」로 되돌아오는 회문 구조이다.

대표적인 차이점을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로, 이름의 열거 순서에 있어서 한국 소화에서는 서열이나 우열을 의식한 경우가 흔히 보이지만 일본 소화에서는 이름 간의 서열이나 우열을 의식하는 경우는 상대적으로 드물었다. 즉, 한국 소화의 경우 형제 또는 관직 관련 이름에서 입신출세나 실질적인 권세를 염두에 둔 우열 판단이 많았지만 일본 소화의 경우에는 그다지 상관이 없었다. 그리고 이는 입신출세 지향적인 조선의 문화 풍토가 소화 속의 인명 열거 방법에도 드러난 결과라 할 수 있다. 반면, 일본 소화에서는 언어 유희적인 연결고리에 따라 귀족들의 이름을 열거하는 방식이 상대적으로 발달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두 번째로, 한국 소화에서는 대개 성씨보다는 뒤의 이름 두 글자와 관련된 언어유희가 더 많았다. 하지만 일본 소화의 경우에는 이와 반대로 성씨와 관련된 언어유희가 더 많았다. 그리고 이는, 외자를 주로 쓰는 한국인의 성씨 특성상, 성씨만을 이용해서는 풍부한 언어유희가 사실상 곤란했기 때문일 것이다. 반면 적어도 두 자 이상을 쓰는 일본인의 성씨의 경우, 그 특성상 언어유희의 가능성이 그만큼 더 풍부했을 것이다.

즉, 한국인의 성씨는 황보나 남궁, 선우 등 특별한 성씨를 제외하면, 대개 한 음절이지만, 일본인의 성씨는 음절이 최소 두 개 이상이기때 언어유희의 가능성이 그만큼 커지는 것이다. 또 한국인의 성씨의 경우, 다 합쳐도 300개 내외인 데 반해, 일본인의 성씨는 최소 20만에서 40만 개 내외라는 점도 성씨를 이용한 언어유희가 상대적으로 일본 소화에서 더 발달한 이유라고 생각된다. 단적인 예로, 한국인의 성씨로는 숫자 관련 이름의 인명 즈쿠시가 사실상 불가능하지만(이씨, 사씨, 오씨, 육씨, 구씨), 일본인의 성씨라면 그것이 얼마든지 가능하다(いち조(一條)상, 니카이(二階)상, 산겐야(三軒家)상, 시오텐(四王天)상, 고탄다(五反田)상, 룩카쿠(六角)상, 시치료사코(七良浴)상, 하치노헤(八戸)상, 구몬(九門)상, 주니초(十二町)상).

세 번째로, 한국 소화에서는 개개의 인명과 인명의 열거 순서뿐만 아니라 인명 그룹 간의 열거 순서 및 조합에 있어서 한시(漢詩)처럼 서로 대구를 이루는 방법이 주로 쓰이지만, 일본 소화에서는 발음의 유사성을 이용하여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의 이름과 도로 이름, 또는 동식물 이름을 서로 일직선으로 연결하는 방법이 발달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즉, 한국 소화의 인명 즈쿠시에서는 마치 첫째 구와 둘째 구가 서로 대구를 이루는 한 편의 한시 같은 느낌이 들지만, 일본 소화의 인명 즈쿠시에서는 마치 한 편의 렌가(連歌) 같은 느낌이 드는 것이다.

[附記]

금번 논문 투고에 있어 귀중한 심사의견을 주신 세 분 심사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인명 즈쿠시라는 다소 생소한 용어를 써가며 한일 소화 속의 인명 열거 방법을 비교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과 과제가 노정 되었습니다. 조언해 주신 모든 내용을 당장 해결하고 담아내기에 여전히 부족하지만, 앞으로의 연구를 통하여 필자가 시도한 가설들을 계속 보강해 나가고자 합니다. 아울러 많이 부족하지만, 연구의 정진과 발전을 위하여 기꺼이 게재의 기회를 주신 『동양학』 편집 위원회에도 심심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參考文獻〉

- 김영진, 「동아시아의 세 사람 주령형 소화」, 『동양학』 57, 단국대학교 동양학연구원, 2014.
- 김영진, 「일본속담(諺)속의 동물조합」, 『日本學研究』 46, 단국대학교 일본연구소, 2015a.
- 김영진, 「일본 소화 속의 동물조합」, 『외국문학연구』 60, 한국외국어대학교 외국문학연구소, 2015b.
- 김영진, 「일본 도상 문화를 통해 본 동물 조합의 방법과 의미」, 『비교일본학』 34, 한양대학교 국제 비교 일본학 연구소, 2015c.
- 김영진, 「에도 하나시본(江戸噺本) 속의 지즈쿠시(字尽くし) - 언어유희 방식의 한일 비교 -」, 『외국학연구』 36, 중앙대학교 외국학연구소, 2016a.
- 김영진, 「지명 즈쿠시(地名尽くし)의 배열방식 한일 비교」, 『비교일본학』 37, 한양대학교 일본학 국제 비교 연구소, 2016b.
- 김영진, 「동아시아 소화(笑話)·속담(俗談) 속의 동물 조합 상징성 비교」, 『비교문화연구』 42, 경희대학교 비교문화연구소, 2016c.
- 김영진, 「아호다라코(阿保陀羅經)를 통해 본 나이즈쿠시(無い尽くし)의 방법과 계보 - 하야모노가타리(早物語) 기법과 언어유희, 세태 풍자를 중심으로 -」, 『일본어문학』 94, 일본어문학회, 2021.
- 김영진, 「가부키(歌舞伎) 『우이로우리(外郎売)』의 하야모노가타리(早物語) 언어유희 방법과 구연(口演) 속도」, 『일본어문학』 98, 일본어문학회, 2022.
- 김응교, 「백석[모닥불]의 열거법 연구」, 『현대문학의 연구』 24, 한국문학연구학회, 2004.
- 박영희, 「《禮記》〈內則〉의 나열식 글쓰기를 통해 본 기록과 규범 사이」, 『중국어문학지』 57, 중국어문학회, 2016.
- 박경신, 『對校·譯註 太平閑話滑稽傳』 1, 국학자료원, 1998a.
- 박경신, 『對校·譯註 太平閑話滑稽傳』 2, 국학자료원, 1998b.
- 오성호, 「백석 시의 열거와 그 의미에 관한 연구」, 『남도문화연구』 25, 순천대학교 남도문화 연구소, 2013.
- 정충권, 『홍보전·홍보가·옹고집전』, 한국고전문학전집 008, 문학동네, 2010.
- 武藤禎夫, 『噺本大系』 1, 東京堂出版, 1987a.
- 武藤禎夫, 『噺本大系』 2, 東京堂出版, 1987b.
- 武藤禎夫, 『噺本大系』 3, 東京堂出版, 1987c.
- 武藤禎夫, 『噺本大系』 4, 東京堂出版, 1987d.
- 武藤禎夫, 『噺本大系』 5, 東京堂出版, 1987e.
- 武藤禎夫, 『噺本大系』 6, 東京堂出版, 1987f.
- 武藤禎夫, 『噺本大系』 7, 東京堂出版, 1987g.
- 武藤禎夫, 『噺本大系』 13, 東京堂出版, 1987h.
- 武藤禎夫, 『噺本大系』 16, 東京堂出版, 1987i.

武藤禎夫, 『定本 落語三百題』, 岩波書店, 2007.

森田雅也, 『『色里三所世帯』と京都・大坂・江戸-西鶴と貞享期の読者の三都意識をめぐって-』, 『日本文藝研究』 55: 4, 2004.

吉川三枝子, 「物尽くしの体系的 연구」, 『日本歌謡研究』 第13卷, 日本歌謡学会, 1974.

* 이 논문은 2022년 11월 25일에 투고되어,
2022년 12월 15일에 심사위원을 확정하고,
2023년 1월 5일까지 심사하고,
2023년 1월 10일에 게재가 확정되었음.

Abstract

A Study on the Method of Enumerating Person's names of Japanese and Korean Comedic Stories

Keum, YoungJin*

In this paper, the method of enumerating people's names in small intestines in both Korea and Japan was considered. In terms of the enumeration order and combination method of people's names, it was found that "different" methods had developed in both Korean and Japanese comedic stories.

First, in Korean comedic stories, there is a consideration of rank or superiority and inferiority among the characters listed, but there is almost no such tendency in Japanese comedic stories. And this is due to the difference between Joseon's culture of the nobleman, which is oriented toward success in life, and the hereditary aristocratic culture of the Japan, which is not.

Second, in Korean comedic stories, wordplay related to names rather than surnames developed, but in Japanese comedic stories, on the contrary, wordplay related to surnames developed. And this is because Korean surnames are short and not many, so they are not suitable for wordplay, but Japanese surnames are long and numerous, so they are suitable for wordplay.

Thirdly, in Korean comedic stories, there is a method in which names and names are listed in parallel, like in Chinese poetry, but in Japanese comedic stories, names and names are listed as if they are connected in a long straight line like Renga(連歌). And this is due to the difference in the development of classical poetry literature of the two countries.

[Keywords] Korean and Japanese comedic stories, Personal names, Mono-zukushi(物尽くし), Method of enumeration, Donggukgolgyejeon, Edo-hanashibon

* A teaching professor in College of Japanese and literature, Hankuk university of foreign studies